

# 대만 해외시장동향 [2026년 6월]

'26. 6. 30.(화) /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 [주요내용 목차]

###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 1.1 대만 아웃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6.1~5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 '26.1~5월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 '26.1~5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 1.2 대만 인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6.1~5월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 '26.1~5월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 '26.1~5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대만 인바운드 시장] △(일반동향) 1분기 인바운드 여행객 수 223만, 전년 동기 대비 4.85% 증가, △(정책사업) 재방문 외국인 대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실시 예정, △(일본동향) 대만 방문 일본인 관광객 소비 14.28% 증가, 숙박/백화점/외식업에 지출 많아, △(관광서) 일본 유관기관과 협력,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 추진, △(양안관광) 대만, 상하이-푸젠성 개별관광 재개 위한 답사 신청 거부

[대만 아웃바운드 시장(일반동향 및 경쟁국 동향)] △(일반동향) 1분기 아웃바운드 여행객수 536만, 해외여행시장 질적 변화, △(시장별 동향) 여름 성수기 한국·일본 강세, 장거리 수요는 감소, △(경쟁국\_일본) 일본 방문 대만 관광객의 88%가 재방문, 소비액 가장 많아, △(경쟁국\_필리핀) 대만, 필리핀 정부에 '비자 면제' 제도 연장 기대 △(항공동향) 대만 국적 항공사 매월 최고 매출 기록 갱신 중

[대만 관광산업(국내관광포함)] △(국내여행) 업계 신규 콘텐츠 및 상품 개발 노력, 국내여행 수요 회복 추세,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국내 여행 보조금 프로그램 9월부터 시행, △(국제항 개선사업) 교통부, 국내 11개 항구 선진화 및 비즈니스 구역 개선을 위한 투자

###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26.1-5월 방한 대만관광객수/ - 입국(공항) 루트별 대만관광객수 및 비중

#### 2.2 방한 항공동향

- '26.1-5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25년 대비 증가율
- '26.5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및 주요 분석

2.3 향후 전망: 한국의 대만 해외여행시장 성장 견인, 여름 성수기에도 이어질 듯

### 3. 타이베이지사 '26.6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 1. 대만 관광시장 동향

## 1.1 대만 아웃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026.1-5월 월별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24년	a/b 증가율
1월	1,765,274	1,613,482	1,281,751	9.4%
2월	1,828,010	1,415,766	1,389,474	29.1%
3월	1,771,921	1,463,304	1,321,971	21.1%
4월	1,755,897	1,475,009	1,347,523	19.0%
5월	1,703,031	1,525,029	1,360,781	11.7%
<b>1~5월</b>	<b>8,824,133</b>	<b>7,492,590</b>	<b>6,701,500</b>	<b>17.8%</b>
6월		1,648,672	1,566,852	
7월		1,733,458	1,572,801	
8월		1,735,942	1,547,087	
9월		1,498,878	1,364,271	
10월		1,735,534	1,409,979	
11월		1,535,165	1,360,810	
12월		1,564,197	1,326,383	
<b>계</b>		<b>18,944,436</b>	<b>16,849,683</b>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6.30 현재 '26.5월 데이터까지 발표)

○ 2026.1-5월 월별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일본	중국	한국	베트남	태국	홍콩
<b>1월 (비중)</b>	687,698 (39.0%)	284,532 (16.1%)	163,616 (9.3%)	97,950 (5.5%)	102,407 (5.8%)	140,151 (7.9%)
<b>2월 (비중)</b>	685,066 (37.5%)	249,539 (13.7%)	180,547 (9.9%)	98,964 (5.4%)	113,774 (6.2%)	165,358 (9.0%)
<b>3월 (비중)</b>	640,025 (36.1%)	334,387 (18.9%)	191,864 (10.8%)	101,612 (5.7%)	86,256 (4.9%)	143,377 (8.1%)
<b>4월 (비중)</b>	641,304 (36.5%)	320,587 (18.2%)	188,206 (10.7%)	107,069 (6.1%)	81,037 (4.6%)	145,462 (8.3%)
<b>5월 (비중)</b>	612,475 (36.0%)	330,614 (19.4%)	188,644 (11.1%)	95,186 (5.6%)	73,824 (4.3%)	138,709 (8.1%)
<b>(a) '26.1-5월 (비중)</b>	<b>3,266,568 (37.0%)</b>	<b>1,519,659 (17.2%)</b>	<b>912,877 (10.3%)</b>	<b>500,781 (5.7%)</b>	<b>457,298 (5.2%)</b>	<b>733,057 (8.3%)</b>
<b>(b)'25 비중*</b>	<b>35.5%</b>	<b>17.1%</b>	<b>9.7%</b>	<b>6.4%</b>	<b>5.4%</b>	<b>8.6%</b>
<b>(c)'24 비중*</b>	35.6%	16.4%	8.5%	7.5%	6.7%	7.1%
<b>(d)'23 비중*</b>	35.8%	14.9%	8.1%	7.2%	6.6%	6.3%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아웃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26.1-5월 대만 아웃바운드 동향

- 대만의 5월 아웃바운드 관광객수는 1,703,031명으로 전년 동기 (1,755,897명) 대비 0.03% 감소하였음. 1~5월 누계로는 8,824,133명으로 전년 동기(7,492,590명) 대비 17.8% 증가하여 대만의 아웃바운드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국가별로는 일본이 1~5월 3,266,568명으로 3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2024년(35.6%), 2025년(35.5%) 비중에 비해서도 증가하여 대만인의 일본 여행에 대한 선호를 입증하였음
- 두 번째 해외여행 목적지는 중국으로, 1~5월 대만 아웃바운드 수는 1,519,659명으로 17.2%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2025년 비중(17.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세 번째는 한국으로, 1~5월 대만 아웃바운드 수 912,877명, 비중은 10.3%를 차지하였음. 이는 2023년(8.1%), 2024년(8.5%), 2025년(9.7%) 비중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지속 우상향 증가세임이 주목됨

1.2 대만 인바운드관광 시장동향

○ 2026.1-5월 월별 방대만 인바운드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24년	a/b 증가율
1월	723,375	651,078	589,961	11.1%
2월	625,608	699,158	648,348	-10.5%
3월	883,061	778,576	811,608	13.4%
4월	758,613	751,149	610,146	1.0%
5월	692,784	710,933	581,748	-2.6%
<b>1-5월</b>	<b>3,683,441</b>	<b>3,590,894</b>	<b>3,241,811</b>	<b>2.58%</b>
6월		606,346	571,510	
7월		586,226	539,454	
8월		673,102	616,922	
9월		601,339	575,455	
10월		757,860	661,115	
11월		812,236	747,800	
12월		946,544	903,619	
<b>계</b>		<b>8,574,547</b>	<b>7,857,686</b>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6.30 현재 '26.5월 데이터까지 발표)

○ 2026.1-5월 월별 주요국가 방대만 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홍콩/마카오	일본	한국	미국	베트남
1월 (비중)	81,266 (11.2%)	120,310 (16.6%)	130,755 (18.1%)	56,056 (7.7%)	31,044 (4.3%)
2월 (비중)	90,056 (9.3%)	70,337 (11.2%)	96,313 (15.4%)	50,923 (8.1%)	41,169 (6.6%)
3월 (비중)	98,865 (11.2%)	166,393 (18.8%)	94,334 (10.7%)	79,914 (9.0%)	57,327 (6.5%)
4월 (비중)	116,758 (15.4%)	109,235 (14.4%)	82,621 (10.9%)	72,374 (9.5%)	36,859 (4.9%)
5월 (비중)	93,219 (13.5%)	117,617 (17.0%)	78,315 (11.3%)	60,252 (8.7%)	34,768 (5.0%)
<b>(a) 26.1-5월 (비중)</b>	<b>480,164 (13.0%)</b>	<b>583,892 (17.0%)</b>	<b>482,338 (13.1%)</b>	<b>319,518 (8.7%)</b>	<b>201,167 (5.5%)</b>
<b>(a) 25 비중*</b>	<b>15.3%</b>	<b>17.3%</b>	<b>11.9%</b>	<b>8.3%</b>	<b>5.0%</b>
<b>(a) 24 비중*</b>	<b>16.7%</b>	<b>16.8%</b>	<b>12.8%</b>	<b>8.3%</b>	<b>4.7%</b>
<b>(a) 23 비중*</b>	18.5%	14.3%	11.5%	8.2%	5.9%
구 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중국
1월 (비중)	28,113 (3.9%)	33,064 (4.6%)	33,365 (4.6%)	68,517 (9.5%)	46,690 (6.5%)
2월 (비중)	27,312 (4.4%)	21,584 (3.5%)	26,968 (4.3%)	61,602 (9.8%)	58,062 (9.3%)
3월 (비중)	42,966 (4.9%)	47,795 (5.4%)	46,138 (5.2%)	79,900 (9.0%)	46,864 (5.3%)
4월 (비중)	30,013 (4.0%)	38,974 (5.1%)	43,936 (5.8%)	72,629 (9.6%)	49,794 (6.6%)
5월 (비중)	32,022 (4.6%)	36,084 (5.2%)	35,375 (5.1%)	62,800 (9.1%)	58,655 (8.5%)
<b>(a) 26.1-5월 (비중)</b>	<b>160,426 (4.4%)</b>	<b>177,501 (4.8%)</b>	<b>185,782 (5.0%)</b>	<b>345,448 (9.4%)</b>	<b>260,065 (7.1%)</b>
<b>(a) 25 비중*</b>	<b>4.5%</b>	<b>5.2%</b>	<b>4.8%</b>	<b>7.3%</b>	<b>7.4%</b>
<b>(a) 24 비중*</b>	<b>5.5%</b>	<b>5.7%</b>	<b>5.1%</b>	<b>5.9%</b>	<b>5.6%</b>
<b>(a) 23 비중*</b>	6.7%	7.2%	6.1%	5.9%	3.5%

[출처] 대만 관광서 통계자료 정리/ \*각 년도 대만 인바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026.1-5월 대만 인바운드 동향

- 대만의 5월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692,784명으로 전년 동기(758,613명) 대비 2.6% 감소하였음. 1~5월 누적치는 3,683,441명으로 전년 동기(3,590,894명) 대비 2.58% 증가하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1~5월 기간 중 대만을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일본으로 583,892명이며 17.0% 비중을 차지하였음. 2위는 한국인데, 한국의 경우 2023년 11.5%에

서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2026년 1~5월 기준 전체 비중에서 13.1%를 차지하며 대만 인바운드 시장에서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음. 홍콩/마카오는 2023년 18.5%부터 매년 비중이 줄어들며 2026년 1~5월 기준 전체 비중 중 13.0%으로 기존 2위에서 3위로 역전됨

### 1.3 대만 기타 관광시장 동향

#### 대만 인바운드시장

- (일반동향) 1분기 인바운드 여행객수 223만, 전년 동기 대비 4.85% 증가
  - 1분기 대만 방문 외국인관광객수는 2,232,04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5% 증가,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2019년 1분기 290만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
  - 대만 매체(中國時報)가 분석한 1분기 인바운드 시장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음

	특징	세부내용
1	동남아시아가 주요 성장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 방문 동남아시아 관광객수는 718,8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2% 증가</li> <li>● 특히, 필리핀은 무비자 정책에 힘입어 41.37% 증가</li> </ul>
2	한국, 최대 관광객 공급원으로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객 유입 상위 3개국은 일본(16.0%), 한국(14.4%), 홍콩(11.2%) 순</li> <li>● 다만, 순수 관광 목적 관광객수는 한국(29만)이 일본(27만)을 넘어섬</li> </ul>
3	가오슝공항 입국객 크게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전히 타오위안공항이 입국객의 주요 관문이나, 가오슝공항을 통한 관광객 1분기 16.8% 증가</li> <li>● 홍콩, 마카오, 한국, 일본, 베트남 관광객 유입 증가</li> </ul>

- (정책사업) 재방문 외국인 대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실시 예정
  - 관광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 위한 재방문 인센티브 프로그램 기획,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여행자는 최대 NT\$8,000(본인 NT\$5,000 및 동행 NT\$3,000)에 달하는 여행 혜택을 수령할 수 있음[세부내용 추후 발표]
- (일본동향) 대만 방문 일본인 관광객 소비 14.28% 증가, 숙박/백화점/외식업에 지출 많아
  - 2025년 대만 방문 외국인관광객 중에는 일본인이 가장 많았는데, 전

년 대비 12.12% 증가한 148만명이 방문함. 같은 기간 일본 신용카드 소지자의 대만 내 총 지출액은 NT\$68억으로 14.28% 증가, 거래건수는 33.01% 증가함

- 한편, 일본인 소비의 70%가 숙박, 백화점, 외식업에 집중돼 있으며, NT\$1,000 미만의 소액 거래가 전체의 72.19% 차지

○ **(관광서) 일본 유관기관과 협력,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 추진**

- (일본) △JATA가 일본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7.1~) 연계 ‘Motta! To Overseas’라는 해외여행 활성화 캠페인을 공식 발표(6.16)하자, 관광서는 천위슈 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같은 날 일본에 파견, JATA와 양국 관광 협력 및 교류 심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큐여행사 등 일본 대표 여행사와 재방문 상품과 고급/심화 여행상품 개발을 협의 △한편, 관광서는 일본과의 문화교류 강화 목적으로 홋카이도 요사코이 소란 축제에 공연팀을 파견, ‘Taiwan Now’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지금 대만을 여행하라’는 취지의 홍보활동을 펼침(6.13~14) △교통부와 관광서는 또한 미아오리에서 ‘대만-일본 관광 정상 포럼’을 개최, 양국 업계 관계자 200명을 초청, 상호 재방문과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 (호주/뉴질랜드) 관광서, 6.17~25 기간 여행사, 호텔, 항공사, 문화단체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시드니, 멜버른, 오클랜드에서 대만 관광홍보행사 개최. ‘대만은 연중무휴 24시간 매력적인 관광지’라는 의미로 “대만은 절대 닫지 않는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300여개의 업체가 B2B 상담에 참가함

- (필리핀) 무비자 시범 정책과 항공편 증대 등에 힘입어 대만 방문 필리핀 관광객 지속 증가, 1분기에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21만명 이상 기록. 이에 관광서는 53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마닐라와 세부에 파견, 6.12~14 기간 대만관광 홍보 행사를 진행. B2B와 B2C로 나뉘어 진행된 행사를 통해, NT\$2천만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 **(양안관광) 대만, 상하이·푸젠성 개별관광 재개 위한 답사 신청 거부**

-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관공실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이 발표한 <대만 10대 우대 조치> 중 ‘상하이 및 푸젠성 주민 대만 개별관광 재개

시범사업' 항목과 관련, 상하이와 푸젠 관광업체가 사전답사를 위한 대만 방문을 신청했으나, 대만 당국은 "양측 간 관광 협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방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타이베이시여행업공회(台北市旅行商業同業公會) 이사장은 대만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일반 시민들의 관광교류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중국인들의 대만여행 재개는 지역 소비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대만의 문화와 사람, 민주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을 개진하며 여행업계의 의견을 대변함

**대만 아웃바운드시장(일반동향 및 경쟁국 동향)**

○ (일반동향) 1분기 아웃바운드 여행객수 536만, 해외여행시장 질적 변화

- 1분기 대만 아웃바운드 관광객수는 19.42% 증가한 536만520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만 매체는(中國時報)아래와 같이 5가지 특징을 분석해냄

	특징	세부내용
1	2월 여행수요 가장 많아	● 1분기중엔 2월이 최대 해외여행 성수기, 춘절연휴의 영향임
2	일본 37.5% 차지, 한국이 성장률 견인	● 목적지 분포는 아시아가 93.49%, 일본이 전년 동기 대비 24.57% 증가한 201만명으로 37.5% 차지. 한편, 일본 방문 외국인 중 대만인이 구매력 1위(3,884억 엔)로 전체 소비의 16.6% 차지 ● 한국은 2위 중국에 이어 3위이나 성장률은 39.4%로 시장을 선도. 여성중심 뷰티/패션/한류 콘텐츠가 새로운 방한관광 생태계를 조성
3	30대가 해외여행시장의 원동력	● 여성이 남성을, 30대가 40대를 제치고 해외 여행 소비시장의 중심축으로 부상 ● 동시에 60세 이상 관광객이 95만명 이상으로 여행시장 내 실버시장의 성장이 눈에 띈
4	'일주일 여행'이 해외여행 표준	● 해외여행 평균 체류기간은 5~7일 ● 구미주 장거리 여행일수 증가로 심층여행 선호
5	지정학적 요인으로 UAE 수요 감소	● 1분기 UAE는 30.22% 성장하였으나, 3월은 54.06% 마이너스 성장 기록, 전쟁으로 인한 두바이와 아부다비 간 항공편 대규모 취소 영향

○ (시장별 동향) 여름 성수기 한국·일본 강세, 장거리 수요는 감소

- (유럽) 유럽 노선 수요 10~20%감소, 중동 경유 항공편 회피, 항공권

- 및 랜드비용 상승에 기인한 상품가 인상(10% 이상) 등이 원인. 단 스타럭스의 프라하 취향이 유럽수요를 자극하고 있음
- (미국) 전쟁, 유류할증료 및 항공료 상승 등에 대한 뉴스가 소비자들의 해외여행 예약 심리에 영향을 끼친 탓에 미국 등 장거리 여행상품 수요가 10~20% 감소했다고 업계는 분석. 유류할증료는 인상된 상태이나 여행사는 상품가를 낮춰 상쇄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화항공과 스타럭스의 피닉스 취향, 에바항공의 워싱턴DC 취향 등으로 좌석 공급량이 증가된 상황에서 업계의 특가 프로모션 등과 함께 이후 수요 증가 가능
  - (일본) 여름 성수기 상품 판매 상승세. 6월은 전년대비 보합세, 7~8월은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 대도시 수요 외에도 오키나와, 도호쿠, 나고야 등 섬 휴양지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지방여행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 당초 단풍, 설경, 온천으로 인기있던 도호쿠 지역이 여름 관광지로도 부상하고 있는 것처럼 신규 지역 콘텐츠가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 (한국) 주요여행사들은 한국 상품 매출이 부산 중심 전년 대비 30% 정도 증가했다고 전하고 있음. 특히 부산은 현재 한국 단체여행시장에서 가장 판매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항공편 증대와 상품 콘텐츠 최적화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분석. 가족여행 대세가 젊은층(직장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부산 미식을 강조한 상품이나 후쿠오카 연계 상품 등 파생상품이 출시되고 있음
  - (호주·뉴질랜드) 중동전쟁, 유가변동, 항공편 조정 등으로 구미주나 중동의 장거리여행 수요가 호주와 뉴질랜드로 전환되는 현상 발생, 예상치를 넘어서는 여름시즌 매출을 보이고 있음. 9일간의 장기 일정으로 심도 있는 콘텐츠를 경험하는 상품이 많으며, 7월은 예약마감, 8월~10월도 전년 대비 예약 증가
  - (동남아시아) 업계는 '동남아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식. 항공권 가격 인상과 현지 인플레이션이 여행비용을 상승시켜 '가성비'가 강점이던 동남아 상품의 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 여름 성수기 기간 태국 방콕과 푸켓, 베트남 푸꾸옥은 항공사간의 가격 경쟁으로 상품가가 낮아져 매출 반등이 기대되나, 싱가포르와 말

레이시아는 부진 예상. 하지만 업계는 8월 이후 인센티브 단체의 동남아 수요는 기대할 만 하고 9월부터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 중  
- (홍콩·마카오) 올 여름 홍콩과 마카오 여행문의는 약 20~30% 상승, 매출은 소폭 증가. 2박3일 홍콩여행 상품이 어린이 동반 가족단위 여행자에게 특히 인기이며, 젊은층과 노년층 수요도 증가 추세. 1일만 휴가 내면 주말 이용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

○ (경쟁국\_일본) 일본 방문 대만 관광객의 88%가 재방문, 소비액 가장 많아

- (트렌드) JNTO 발표 <2025년 일본 관광 통계 자료> 및 <2026년 1분기 대만관광객 소비 동향 조사>에 따르면, 대만 관광객의 88%가 재방문객으로 매우 높은 충성도와 재방문율을 나타냄. 최근 대만인의 일본여행 트렌드는 '이국적인 관광'에서 '라이프스타일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개별여행이 8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가족여행객과 노년층 수요도 많아 단체관광도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기관은 분석. 소비측면에서 올해 1분기 대만인은 일본에서 총 3884억엔을 지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1위(16.6%)를 차지,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9.5만엔에 달함. 여행 콘텐츠로는 '미식'을 가장 좋아하고 '쇼핑'이 뒤를 이었으나 '온천', '스키', '농어촌 마을 탐방' 등의 체험활동도 잠재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최근 Kkday가 보도한 플랫폼 내 일본 스포츠 관광 관련 검색량의 65% 증가 내용과도 맞닿아 있음

- (정책) 일본정부는 물가상승, 환율변동, 오버투어리즘 등의 이슈 해소를 위하여 7.1일부로 외국인 비자수수료와 출국세를 대폭 인상. 비자수수료는 현재의 3천엔에서 1만5천엔으로 5배 인상되며, 출국세는 1천엔에서 3천엔으로 3배 인상됨(대만은 일본에 무비자 입국). 한편, 최근 구마모토현은 TSMC 공장 건립 후 지역 내 외국인 투숙객수가 급증, 이들을 대상으로 1인 1박 당 200엔 숙박세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중이라 밝혔으며, 가고시마현은 외국인 대상 신칸센 보조금 지급 정책을 주민의 반대로 폐지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제한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음

○ (경쟁국\_필리핀) 대만, 필리핀 정부에 '비자 면제' 제도 연장 기대

- 대만은 2017년 11월부터 필리핀 국민 대상 14일 무비자 입국정책을, 필리핀은 2025년 7월부터 대만 국민대상 같은 정책을 실시중이나, 동 정책이 각각 7월말, 6월말 종료될 예정
- 주필리핀 중화민국 부대표는 대만과 필리핀의 상호 무비자 협정이 양국의 관광교류와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며, 필리핀 정부에 대만에 대한 무비자 협정 연장을 공식 요구

○ (항공동향) 대만 국적 항공사 매월 최고 매출 기록 갱신 중

- (5월 다시 최고 매출 기록) 중화항공, 스타러스, 타이거에어 모두 4월에 이어 5월에도 역대 최고 매출 기록, 6월도 그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5월 4대 항공사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성장하였으며, 6월도 졸업/여름휴가 시즌, 월드컵 특수, 아태지역 대형 이벤트 등으로 예약 건조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항공업계는 밝힘
- (중화항공) 중화항공은 CEO가 직접 나서, 협업 여행사 임원급이 참가하는 '호주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단'을 구성, 호주 퀸즈랜드/골드코스트/빅토리아 관광청과 공동으로 팸투어 진행. 이번 투어 코스에는 전세요트, 골프, 열기구, 와이너리 답사와 체험이 포함돼 있으며, 이후 고급 호주/뉴질랜드 상품 개발을 통한 동 노선 활성화 계획
- (에바항공) 6.26일부터 타오위안-워싱턴DC 취항. 6월 말 기준, 첫 7편은 매진, 7월 평균 예약률은 90% 이상으로 예상을 뛰어 넘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항공사는 전언. 환승객이 50~60%인 것이 특징
- (스타러스) 여름 및 가을 성수기 타깃 증편계획 발표: 타이베이-부산 노선 주 12회로 증편(7.1~31), 타이베이-치앙마이 노선 주 6회로 증편(7.12~31), 타이중-부산 노선 주 5회로 증편(7.11~8.20), 타이베이-고베 노선 주 9회로 증편(8.1~10.24) 예정
- (타이거에어) △9월부터 가오슝-이시가키섬/고마쓰 노선 단독 신규 취항 발표하고, 연계하여 NT\$1599 특가 항공권 프로모션 진행. 이로써 타이거 에어는 가오슝발 11개 일본노선, 김포/제주/다낭 노선 포함시 가오슝발 14개의 최다 국제노선을 운항 △한편, 지난해 12월 타이난-구마모토 노선 운항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타이거에어는 운항초기 70%의 탑승률이 올해 6~8월 예약이 90%를 넘어서고 있다고

전함

- (에어아시아) 6.15일부터 가오슝-오사카 노선 운항. 항공사 측은 취항 기념 특가 혜택과 무료 항공권 증정, 변경 수수료 무료 등의 다양한 이벤트 진행

**대만 관광산업(국내관광포함)**

○ (국내여행) 업계 신규 콘텐츠 및 상품 개발 노력, 국내여행 수요 회복 추세

- (여행사) 과거 아리산, 일월담, 타이루거협곡 등의 관광자원에 의존했던 국내관광 상품이 대만등불축제, 타이동 열기구 축제, 가오슝 대규모 콘서트 등과 같은 대형행사와 연계한 문화콘텐츠 상품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언. 이러한 콘텐츠는 젊은층 여행수요를 흡수하고 대형단체 유치 가능, 여행사 매출 신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이에 라이온트래블, 피닉스트래블 등 대형 여행사들은 유명 밴드의 지역 콘서트 상품, 지역축제 연계 상품 등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숙박업계) 1분기 국내 호텔 투숙객 수 1,821.8만명으로 3년 연속 성장세 기록, 전국 객실 점유율은 50% 이상을 기록했고, 요금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 호텔업계가 다양한 체험을 포함한 숙박상품과 가격옵션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성장의 동력인 것으로 분석됨
- (교통) 한편, LINE GO는 2026년 상반기 차량렌탈 데이터 분석결과를 발표, 국내여행의 패턴이 일상적인 단거리 여행, 주말과 연휴 이용, 이란과 지룽 등 타이베이 근교 관광지 선호 등으로 변화했다고 분석. 동시에 상반기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50% 증가했으며, 주말과 공휴일의 이용은 평일보다 23%이상 높아, 휴일을 이용한 대도시 주변 단거리 국내여행 활성화 모습을 보임

○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 국내 여행 보조금 프로그램 9월부터 시행

- 관광서가 평일 여행 장려 위해 기획한 평일 국내여행 보조금 프로그램이 9월부터 시행됨. 여행자는 1박 숙박에 NT\$800, 2박은 NT\$1,200을 지원하며, 최대 NT\$2,000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 NT\$34.6억의 예산투입으로 계획된 동 사업은 6월말 입법원 예산 통과시 이르면 9월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관광서는 예측

- (국제항 개선사업) 교통부, 국내 11개 항구의 선진화 및 비즈니스 구역 개선을 위해 NT\$572억 투자, 100개 이상의 건설사업을 추진 계획 발표. 특히 7대 주요 국제항에 34개의 건설사업 추진에 NT\$477억 투입 예정

## 2. 방한관광 현황 및 전망

### 2.1 방한 대만관광객수 추이 및 특징

- 2026.1-5월 월별 방한 대만관광객수 (단위 : 명)

구 분	'26년(a)	'25년(b)	a/b 증가율	'26년 전체 방한객수(c)	a/c 비중
1월	166,779	135,434	23.1%	1,265,658	13.2%
2월	183,753	120,015	53.1%	1,431,472	12.8%
3월	192,138	140,017	37.2%	2,045,992	9.4%
4월	192,854	151,613	27.2%	2,027,860	9.5%
5월	191,795	150,272	27.6%	1,945,809	9.9%
<b>1~5월</b>	<b>927,319</b>	<b>697,351</b>	<b>33.0%</b>	<b>8,716,791</b>	<b>10.6%</b>
6월		164,885			
7월		199,280			
8월		191,565			
9월		154,992			
10월		161,049			
11월		158,374			
12월		163,918			
<b>계</b>		<b>1,891,414</b>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 2026.1-5월 한국-대만 방문객수

구 분	대만→한국	한국→대만	계
1월	166,779	130,755	<b>297,534</b>
2월	183,753	96,313	<b>280,066</b>
3월	192,138	94,334	<b>286,472</b>
4월	192,854	82,621	<b>275,475</b>
5월	191,795	78,315	<b>270,110</b>
<b>1~5월</b>	<b>927,319</b>	<b>482,338</b>	<b>1,409,657</b>

○ 입국(공항) 루트별 대만관광객수 및 비중

(단위 : 명)

구 분	전체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대구	청주
'26.1월	166,779	78,932 (47.3%)	44,852 (26.9%)	12,046 (7.2%)	23,820 (14.3%)	2,074 (1.2%)	4,812 (2.9%)
'26.2월	183,753	82,277 (44.8%)	52,909 (28.8%)	13,299 (7.2%)	24,158 (13.1%)	3,796 (2.1%)	6,683 (3.6%)
'26.3월	192,138	76,238 (39.7%)	62,197 (32.4%)	13,299 (6.9%)	26,152 (13.6%)	3,141 (1.6%)	4,445 (2.3%)
'26.4월	192,854	78,191 (40.5%)	67,222 (34.9%)	12,855 (6.7%)	25,096 (13.0%)	3,428 (1.8%)	4,042 (2.1%)
'26.5월	191,795	73,857 (38.5%)	68,371 (35.6%)	13,227 (6.9%)	26,045 (13.6%)	3,081 (1.6%)	3,308 (1.7%)
'26.1-5월 누계	<b>927,319</b>	<b>389,495 (42.0%)</b>	<b>295,551 (31.9%)</b>	<b>64,726 (7.0%)</b>	<b>125,272 (13.5%)</b>	<b>15,520 (1.7%)</b>	<b>23,290 (2.5%)</b>
'25년 전체**	<b>1,891,414</b>	<b>884,121 (46.7%)</b>	<b>509,136 (26.9%)</b>	<b>144,491 (7.6%)</b>	<b>211,121 (11.2%)</b>	<b>65,143 (3.4%)</b>	<b>41,385 (2.2%)</b>
'24년 전체*	<b>1,473,908</b>	<b>722,453 (49.0%)</b>	<b>361,863 (24.6%)</b>	<b>123,098 (8.4%)</b>	<b>133,256 (9.0%)</b>	<b>73,467 (5.0%)</b>	<b>27,991 (1.9%)</b>

[출처] 한국관광 데이터랩/ [참고] ( )은 전체 입국루트에서 차지하는 비중

\* (무안) 591명, (양양) 4명 \*\* (무안) 0명, (양양) 2명

○ 주요 분석

- 2026년 5월 방한 대만관광객 수는 191,795명으로 전년 동기(150,272명) 대비 27.6% 증가하였음. 방한 대만 관광객은 '26년 매월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1~5월 누적 방한객은 927,319명으로 지난 해 동기 대비 33.0% 증가하며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함
- 한국은 대만 해외여행 목적지 2위에 올라서며, 우리나라 인바운드 시장에서 중국·일본에 이어 제3위 시장을 유지하며 상호 핵심시장으로 자리매김함
- 5월 기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대만관광객은 73,857명으로 전체 대만관광객의 38.5%를 차지하여 여전히 최대 입국 관문 역할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인천공항 비중은 2026년 1월 47.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김해공항 입국 비중은 1월 26.9%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5월에는 35.6%를 기록하며 양 공항 격차가 크게 축소됨.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내 김해공항을 통한 입국객 비중이 인천공항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대만 방한관광객 증가에 따라 지방공항 이용객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김해공항을 제외한 주요 지방공항 중 제주공항은 14.3%에서 13.6%, 청주공항은 2.9%에서 1.7%로 비중이 하락하며 지방공항 수요 확대가 여타 공항으로 충분히 확산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1~5월 기준 각 공항 입국객수 가운데 대만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통해 지방공항 국제선 수요에 있어 대만 관광객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음.

구 분	전체	인천	김해	김포	제주	대구	청주
전체	8,716,791	5,587,633	806,108	566,171	662,380	46,146	50,842
대만	927,319	389,495	295,551	64,726	125,272	15,520	23,290
대만비중	10.6%	7.0%	36.7%	11.4%	18.9%	33.6%	45.8%

- 2026. 5월 방한 대만관광객 수의 각 공항별 이용 비중은 인천 38.5%, 김해 35.6%, 김포 6.9%, 제주 13.6%, 대구 1.6%, 청주 1.7%로 나타남.
- 대만 내 부산여행 열풍으로 김해공항 입국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6. 5월 김해공항 입국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음.

## 2.2 방한 항공동향

○ '26.1-5월 대만-한국 노선 운항편수 및 '25년 대비 증가율 (단위 : 편)

구 분	'26년(a)	'25년(b)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전월대비 증가율
1월	2,837	2,486	14.1%	3.4%
2월	2,654	2,215	19.8%	-6.5%
3월	2,902	2,381	21.9%	9.3%
4월	2,871	2,274	26.2%	-1.1%
5월	2,962	2,377	24.6%	3.2%
<b>1-5월</b>	<b>14,226</b>	<b>11,733</b>	<b>21.2%</b>	-
6월		2,227		
7월		2,440		
8월		2,460		
9월		2,285		
10월		2,622		
11월		2,628		
12월		2,745		
<b>계</b>		<b>29,140</b>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 '26.5월 현재 주요 노선 운항편수

(단위 : 편)

구 분	'26.5월	'26.4월	'26.3월	'26.2월
타이베이-인천	764 (1.9%)	750 (-1.1%)	758 (3.4%)	733 (-2.8%)
타이베이-김해	779 (3.6%)	752 (-0.7%)	757 (19.6%)	633 (-8.3%)
타이베이-대구	62 (-3.1%)	64 (3.2%)	62 (3.3%)	60 (-3.2%)
타이베이-제주	243 (-0.4%)	244 (-1.6%)	248 (8.8%)	228 (-8.1%)
타이베이-청주	124 (4.2%)	119 (-32.8%)	177 (-9.1%)	183 (-1.1%)
타이베이(송산)-김포	124 (3.3%)	120 (-3.2%)	124 (10.7%)	112 (-9.7%)
가오슝-인천	180 (-)	180 (-3.2%)	186 (10.7%)	168 (-9.7%)
가오슝-김해	186 (4.5%)	178 (36.9%)	130 (16.1%)	112 (-9.7%)
가오슝-김포	100 (6.4%)	94 (-9.6%)	104 (8.3%)	96 (-9.4%)
가오슝-제주	71 (6.0%)	67 (-5.6%)	71 (10.9%)	64 (-11.1%)
타이중-인천	248 (3.3%)	240 (-3.2%)	248 (10.7%)	224 (-9.7%)
타이중-제주	19 (11.8%)	17 (-)	17 (6.3%)	16 (-11.1%)
타이중-김해	44 (4.8%)	42 (950.0%)	4	
화롄-인천	18 (12.5%)	16 (-)	16 (-)	16 (-11.1%)

[출처]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기준] 정기+부정기, 출발편+도착편

[참고] ( )는 전월 대비 증가율

○ 주요 분석

- 2026년 5월 한-대만 운항편수는 2,962편으로 전년 동기(2,377편) 대비 24.6% 증가하였으며 전월(2,871편) 대비로도 3.2% 증가함. 5월 운항편수는 2026년 1~5월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항공편 공급 확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5월 누계 운항편수는 14,226편으로 전년 동기(11,733편) 대비 21.2%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방한 대만 관광객 증가율(33.3%)이 이를 상회함. 이는 항공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방한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성수기 항공좌석 확보 및 노선 공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 노선별로는 4월 전월 대비 감소 노선이 다수 나타나며 일시적으로 주춤했으나, 5월에는 타이베이-대구, 타이베이-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전월 대비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임(가오슝-인천 노선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 특히 타이베이-김해 노선 운항편수는 779편을 기록하며 타이베이-인천 노선(764편)을 2개월 연속 상회하였으며, 가오슝-김해와 타이중-김해 등 대만 지방도시와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노선도 확대되고 있어, 김해공항의 대만 관광객 주요 입국 관문으로서의 중요성이 항공 공급

측면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부산 노선의 증편은 3월말부터 시작되어, 6월 신규 취항(스타룩스 항공·진에어), 증편(중화항공·티웨이) 등으로 김해공항 운항 노선 및 입국객 수 증가 흐름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됨

## 2.3 향후 전망

### ○ 한국의 대만 해외여행시장 성장 견인, 여름 성수기에도 이어질 듯

- (통계적 분석) 대만 업계와 매체는 올해 아웃바운드시장은 한국의 성장이 전체 시장은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통계 수치가 그를 증명하고 있음. 우선 1~5월 대만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한데 비해, 방한 관광객수는 동기간 33.0% 증가하여 그 격차가 큰 편이며, 이는 아웃바운드 목적지 1위 국가인 일본의 증가율(21.6%\*) 역시 크게 넘어서는 수준임. 한편, 올해 1~5월 대만시장이 전체 방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지난해 동기기간의 9.7%보다 증가되어 대만시장에 대한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고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시장은 전망

\* 동 수치(대만→일본)에 한해 대만관광서 통계 사용, 기타 통계의 출처는 한국관광데이터랩

- (시장환경적 분석) 1분기 대만 공식 GDP 성장률은 5.48%(전기 대비 연율 13.69%) 기록후 행정원 주계총처는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년만에 최고치인 9.64%로 예측. 또한, AI특수로 인한 총 수출액이 9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며, 성장률은 약 40%로 50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상황. 현재 해외여행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의 동력은 이러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가·기업·가계의 수입증가인 것으로 분석되며, 2분기 중동전쟁에 이어 여름 성수기에 진입하자 유럽의 폭서가 원거리 목적지 수요를 둔화시키고 일본과 한국 수요로 '쏠림'을 만들어 내고 있는 상황. 다만, 5월 기준 CPI 2.2% 상승, 주요 외식업체 가격인상, 5대 주요도시 주택가격 큰 폭 상승 등의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있고, 대만 상위 5천개 기업 중 적자기업수 10년간 최고치, 반도체 연관 산업에 한한 발전 등의 불균형 성장 이슈도 부상하고 있으며, 9월중 국내관광 보조금 프로그램 가동 및 11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둔화를 예상하는 업계의 소리도 있음

- (여행업계 방한상품 현황 분석) 라이온트래블, 창관여행사(長汎假期) 등 대만 주요여행사는 2~3분기 방한상품 판매/예약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 여행사 매출신장의 주요 상품군이며, 그 중에서도 '부산' 상품 수요가 가장 높다고 발표하고 있고, 콜라여행사의 경우 지난해 한국노선 최고 실적 달성후, 올해 상반기에도 그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항공편 확대(전년 대비 20% 이상), 유류할증료 인하, 저환율이 한국상품의 가성비를 높이고 있고, 젊은층 중심 한류콘텐츠 소비 선호도 지속되고 있어 여름 성수기 기간 한국상품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함
- ⇒ (종합전망) 6월 들어 각 항공사들의 부산 항공편 신규취항 또는 증편 소식과 여행사들의 여름 시즌 한국상품 예약/판매 호황이 연일 보고되고 있는 만큼, 올 여름 성수기 기간 대만 방한 시장의 성장이 상반기 실적을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함

### 3. 타이베이지사 '26.6월 현재 추진 주요사업 및 동향

- 3.1 2026년 상반기 여행업계 모객광고지원 결과 검수(1~6월)
- 3.2 2026년 하반기 여행업계 모객광고지원 공고(7~12월)
- 3.3 지방공항 연계상품 및 전세기 상품 특별지원 추진(7~12월)
- 3.4 2026 Taiwan Only 사업(함안낙화놀이/7.4) 모객지원
- 3.5 'K-local 100' 캠페인 추진(중화항공·라이언여행사 협업)
- 3.6 대만 개별관광객 활성화 캠페인 K-local 100 Highlights 2차 준비
- 3.7 전주시-에어로케이 공동 전주 팸투어 지원
- 3.8 대만 유력 여행사(OTA) 공동 FIT 여행상품 프로모션 추진
- 3.9 e스포츠 콘텐츠(RTM, MSI) 활용 SIT 상품화·지원
- 3.10 '한국 중부관광의 해' 여행 후기 공유 및 사진공모전 추진

※ 언론매체(연합보, 나우뉴스, 뤼바오, 자유시보, 중국시보, 뤼치, 공상시보, TVBS, 중앙통신사(CNA) 등), 대만 관광서, 대만관광협회, 대만여행업품질보장협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한국항공협회 항공포털 및 업계동향 등 종합. 끝.